

1. 헌금을 우편으로 발송 시 다음의 새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2.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투표'를 위한 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우편을 수신하신 성도님께서는 투표용지를 발송용봉투에 넣어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 일정

12월 19일 유효표 마감일(19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됨)
12월 20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을 통해 우편투표 결과 공표

3. 금요일예배는 현장예배 없이, 실시간영상예배로 진행됩니다.

4. 당회(12/13)

QT / 성경일독

날짜	QT 날마다 솟는 샘물	성경일독
12/7 (월)	요엘 2:28-32	에베소서 5-6
12/8 (화)	요엘 3:1-8	빌립보서 1-4
12/9 (수)	요엘 3:9-13	골로새서 1-4
12/10 (목)	요엘 3:14-21	데살로니가전서 1-5
12/11 (금)	미가 1:1-7	데살로니가후서 1-3
12/12 (토)	미가 1:8-16	디모데전서 1-6
12/13 (주)	주일설교본문	디모데후서 1-4

예배시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본당)
-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시 (본당)
-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시 50분 (본당)
- EM 예배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 11시 (어린이부 예배실)
- *라디오설교(AM1590) 매월 2,4,5주 금요일

코너스톤 양육과정

새가족반 (4주 or 7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실존적 필요를 위한 과정	수시개강
정착반 (5주 or 10주)	신앙생활의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수시개강
기초반 (12주)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삶의 토대를 배우고 익히는 일대일양육교육	수시개강
제자반 (20주)	하나님나라를 살아내고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위한 일대일제자훈련	상 하반기 1차례 (1월, 8월 개강)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영목 교육전도사 김지선, Sagar Mekwan
시무장로 전진홍 김소림 휴무장로 이현진 협동장로 김병국

오시는 길



33428 N. Sears Blvd. Grayslake, IL 60030
T. 224-541-4359 | www.thececc.com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코너스톤교회

미국장로교 PCA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삼아
하나님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공동체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기도를 항상 힘쓰라>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예배의 부름	요한복음 4장 24절	사회자
● 예배기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다함께
● 사죄은총	다함께
● 감사찬송	29장	다함께
● 교 독 문	56번 (강림절 [2])	다함께
● 사도신경	다함께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46장	다함께
연보봉헌	반주자
● 봉헌기도	사회자
환영과 광고	사회자
성경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다함께
말씀강해	“기도를 항상 힘쓰라”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484장	다함께
● 축도	김영목 목사

골로새서 4장 2절

◆ 서론. 올 한 해 나의 기도 점수, 몇 점입니까?

◆ 본론. 기도에 관한 권면

1. 기도에 항상 힘쓰라 (Devote yourselves to prayer)

- 1)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 2)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2. 기도에 깨어 있으라 (Pray with an alert mind)

- 1) 주의를 집중하여 깨어 열렬하게 기도하라
- 2)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 3)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잘못 구하지 말라

3.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Pray with a thankful heart)

- 1) 환경과 기분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
- 2) 어떤 결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라

◆ 결론. 기도는 부담과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최상의 길이다.

<주께 부르짖으라>

내전을 피해 중동에서 보트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오던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보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뺨뺨하게 타 있어서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 보트들이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를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보트들이 뒤집히기 시작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보트에 탄 난민들이 다가오는 폭풍우를 보고 주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보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크게 외치는 다른 보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폭풍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기도를 하던 난민 중 몇 사람은 폭풍 속에서 빛이 나는 어떤 형체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라진 폭풍 때문에 난민들은 무사히 그리스에 도착하게 됐고,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난민들은 폭풍우가 사라진 것이 기도 때문이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걱정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리스에 무사히 도착한 난민들의 간증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적과도 같은 일들로 구원하십니다. 암흑 속에서 길을 잃을지라도,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1월 29일 헌금통계 \$901.00

금요일예배 (오후 7시 50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학개 1장 8절)